

영광굴비, 2000억 규모 산업 생태계 구축한다

군, 체계적 생산 관리…428개 업체 운영·연간 6960t 생산
‘지리적표시제 등록’·160억 규모 양식산업센터 건립 진행

임금에게 진상되던 영광굴비가 천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굴비는 연간 생산량 약 6960t, 매출 2010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영광지역에는 굴비 관련 업체 428곳이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영광군 법성면 일대는 굴비 가공에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꼽힌다. 해풍의 방향과 세기, 온도와 습도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축적된 전통 가공 방식이 더해지며, 이곳은 국내 최대 굴비 생산지로 성장했다.

이러한 산업적 집적도를 인정받아 영광군은 지난 2009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영광굴비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영광굴비의 품질 경쟁력은 원료와 가공 방식에서 비롯된다.

영광에서는 몸길이 17cm 이상의 국내산 참조기만을 사용한다. 머리 앞부분에 다이

아몬드 모양이 특징인 참조기는 단백질과 칼슘, 철분, 비타민이 풍부해 영양학적 가치도 높다. 특히 칠산 알반디에서 어획되는 참조기는 맛과 육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공 과정에는 전통 염장 방식인 ‘설장법’이 적용된다. 염장에 사용하는 소금 역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명에 ‘소금’이 들어간 영광군 염산면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사용한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과 청정 해풍에 의한 자연 건조 과정을 거쳐 영광굴비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완성된다.

생산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원료 조기는 경매를 통해 조달되며, 수매 확인서를 통해 원산지를 철저히 관리한다.

구입 즉시 가공지로 옮겨 -30도에서 단기 보관한 뒤, -18~22도에서 장기 보관하며 가공한다. 품질 유지를 위해 여름철과 장마철은 피하고, 알이 차는 2~3월에 집중 수매한다. 염장굴비는 주로 3~6월, 마



임금에게 진상되던 영광굴비가 천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해풍에 구들구들 말린 최상품 영광굴비.

른굴비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생산된다.

영광군은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의 지속 가능성 높이기 위한 정책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굴비의 명성과 소비자 신뢰를 제도적으

로 보호하기 위해 ‘영광굴비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 중이며, 참조기 어획량 감소에 대비해 160억원 규모의 ‘참조기 양식산업센터’ 건립도 준비하고 있다.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식생활 변화에

맞춰 굴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개발 연구를 주진하고 있으며, 전통 굴비뿐 아니라 고추장굴비, 보리굴비 등 다양한 상품 가공에 나서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굴비는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대 산업특구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연속된 역사이다. 지역의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온 결과물이다”면서 “굴비 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관광 지원으로 육성해 영광굴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wangnam.co.kr

‘나주 방문의 해’ 선포…500만 관광도시 앞당긴다

시, 연중 축제·행사 연계…‘머무르며 소비하는 구조’ 전환
내달 26일 서울 코엑스서 선포식…전국적 관광 붐업 시동

나주시가 2026년을 ‘나주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숙박과 관광,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전략을 본격 추진하며 500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낸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2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서는 방문의

해 비전 발표를 비롯해 홍보대사 위촉, 관광 관련 기관과의 나주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관광객들이 당일 방문에 그치지 않고 머무르며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숙박 인센티브와 관광 콘텐츠,

연중 축제를 하나의 통신으로 연계한 ‘나주방문의 해’ 핵심 사업을 단계적으

로 추진한다.

홍보대사는 나주 영산포 출신의 세



나주 1박 2일
나주에서 1박하고
최대 15만원 밭자!
2026년 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계적인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나주 반

남면 출신으로 드리마 자이언트와 지붕뚫고 하이킥 등으로 큰 사랑을 받는 국 민배우 유태석, 대한민국 제16대 조리 명장이자 흑백요리사 시즌 1에 출연했던 안유성 세프가 위촉돼 나주 관광 홍보에 힘을 보탠다.

대표 체류형 관광사업으로는 숙박 관

객 인센티브 ‘나주 1박 2일’을 운영하 며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관의 개별관광객에

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여행의 만족과 실질적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취지다.

인센티브는 동행 인원에 따라 2~3인

은 5만원, 4~5인은 10만원, 6인 이상은

13만원을 지급하며 아동 동반 시 2만원

을 추가 지원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현’ 작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월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5월 영산포 흥어·한우축제, 6월 뮤지컬 갈라콘서트 ‘영웅’, 8월 빛가람 하이볼 페스티벌을 이어간다.

10월에는 나주의 대표 통합축제로 자리매김한 ‘2026 나주영산강축제’를 중심으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전국나주마리본대회를 연계해 축제와 미식, 스포츠 수요를 함께 끌어올리고 11월 빛가람 빛정원 페스티벌을 통한 야간 체류 콘텐츠 확장으로 계절별 관광 수요를 촘촘히 연결한다.

운방태 나주시장은 “2026 나주방문의 해”는 단기 이벤트가 아닌 나주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며 “체류형 관광을 도시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고 문화와 산업, 생활이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영암물, 설 명절 앞두고 20% 할인전

쿠폰 5장 지급…1장 당 최대 10만원 혜택

영암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0일까지 온라인 농특산품 판매장 ‘영암물’에서 대규모 할인전과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전은 전국 소비자와 기업·기관 등 명절 선물 단체 수요를 동시에 겨냥한 행사다.

한우, 돼지고기, 오리고기, 민물장어, 유기농쌀, 잡곡, 배, 고구마 등 영암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전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영암물에서 전 상품 20% 할인, 쿠폰 5장이 지급되며, 쿠폰 1장당 최대 10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아울러 ‘붉은 말의 해’ 주제 퀴즈 이벤트로 참여자에게 추첨을 거쳐 접이식 영암물 카트를 준다.

굿즈는 장보기, 캠핑 등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영암군 농특산품 홍보 그림과 글씨가 새겨져 있

순천만 생태예술제 국제포럼 개최

시, 내달 2~3일 순천대·순천만습지 일원

순천시는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2월 2~3일 순천대학교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2026 순천만 생태예술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두루미과학예술센터와 아시아질적탐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두루미과학예술센터·두루미랑·(사) 순천만생태관광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순천시가 후원한다.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랍 사르협약 체결을 기념해 지정된 세계 기념일이며, 올해 주제는 ‘습지와 전통지식·문화유산의 가치 조명’이다.

이번 행사는 ‘순천만의 생태·문화’를 주제로 전시·공연·포럼과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특히 도심과 순천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잇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참가자들이 이 도심의 생태·문화 지혜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의 생태·문화 무대’라는 순천의 강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첫째 날 이후만 작가의 새 그림 전시 관람과 생태예술 프로그램, 국제 협력 사례 발표로 구성되며, 둘째 날에는 생태체험선과 도보 탐방을 통해 순천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나는 현장 일정이 이어진다.

설명과 공연이 결합된 레저 퍼포먼스와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연의 치유 가치를 함께 체감하고, 지역사회 생태문화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사는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성봉 순천만생태관광협의회 대표는 “올해 세계 습지의 날 주제가 ‘습지와 전통지식’인 만큼, 순천만에서 이어져온 자연과 생활의 지혜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함평군은 최근 ‘2027년 국고 건의 현안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농업·관광·정주 여건 개선 등 군

정 주요 현안과 연계한 국고 건의 사업을 짐작 점검했다.

함평, 해양관광·스마트농업 성장동력 발굴

내년 국비 확보 시동…42개 사업 지원 건의

함평군이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해 현안 사업 발굴에 나섰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2027년 국고 건의 현안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농업·관광·정주 여건 개선 등 군정 주요 현안과 연계한 국고 건의 사업을 짐작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총 42건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강조 논리를 정비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강조 논리를 정비하고, 군은 보고회에서 논의한 국고 건의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스마트 농축산업 기반 강화와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한 분야에서 지역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국고 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해 정부 예산과 타당성을 증액까지 전방위 대응을 이어간다.

군 관계자는 “함평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확보는 필수적이다”며 “전 부서가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2027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

담양,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담양군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2월 27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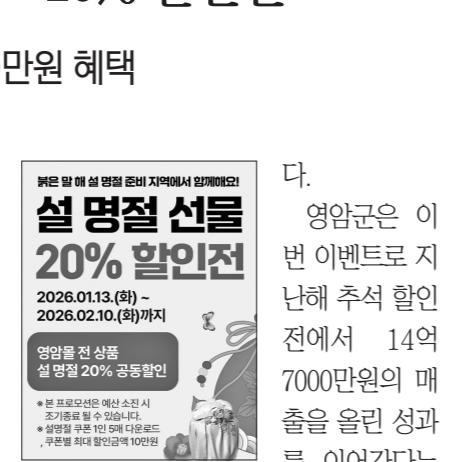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166명으로, 전년 대비 확대된 총사업비 12억 5000만원(도비 2억 3500만원·군비 10억 1500만원)을 투입 한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3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담양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80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전업 직업을 가진 자, 2024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비 지원금인 20만원은 본인 명의의 NH농협체음카드(체크 또는 신용)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군비로 추가 지원되는 10만원은 담양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7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지급 및 사용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금된 포인트는 올해 12월 말까지 문화, 예술, 보건 등 관련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



방침이다.

나아가 명절을 앞둔 이른 할인전으로 영암 농가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명절 소비 경향이 빠르게 움직이는 점을 감안해 선제 기획전과 할인·참여형 이벤트로 영암을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입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략적 온라인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굿즈는 장보기, 캠핑 등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영암군 농특산품 홍보 그림과 글씨가 새겨져 있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